

충남발전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길

박양호 | 전 국토연구원장, 도시재생네트워크 공동대표



충남도청의 새로운 등지인 내포신도시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미래개척측면에서 여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도청의 이전이라는 단순한 공간적 변혁을 뛰어넘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충남 도민의 원대한 꿈이 담겨있다.

도민을 위한 첨단행정 산실이며 창조경제의 거점이자 충남의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의 통합되고 균형된 발전과 행복한 생활권의 중심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는 도민의 염원이 담겨있다. 나아가 앞으로 본격 전개될 환황해권시대와 한반도 새문명 시대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도청이전의 새역사가 충남의 대도약을 향한 도민의 개척과 전진노력에 역사적 다짐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도청의 새로운 공간인 내포신도시의 개발은 대내외 여건의 변환기에 추진되고 있다. 2020년 세계경제의 피크를 향한 세계경제의 사이클이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원동력인 정보통신산업과 바이오와 에너지산업, 그리고 문화와 콘텐츠 산업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는 원천으로 중시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수퍼파워인 중국의 비약적 성장으로 환황해경제권이 본격 전개되는 시점에 내포신도시가 출범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방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시화되어 인구의 지방화 추이가 나타나고 세종시의 출발과 안정적 발전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나아가 국민행복체감형 지역발전이 새로운 지역발전패러다임으로 중요시되는 시기에 내포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는 점으로 봐서 충남도청이전이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충남도청의 이전은 향후 100년을 내다볼 때 충남이 보유한 잠재력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충남의 인구가 200만명을 훌쩍 넘어섰고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충남의 매력이 증강될 수 있는 기회가 집적되어 있다. 세계경제의 융광로, 중국과 근접한 서해안의 중앙지대이며 수도권과 세종시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다. 창조경

제의 자산도 풍부하다.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도 연계될 수 있어 창조경제 네트워크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부여와 공주 등 백제의 고도(古都)를 포함한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기호유교문화권도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다. 아름다운 산-강-바다를 잇는 자연생태자원도 충남에는 풍부하다.

충남도청의 새로운 동지인 내포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그리고 충남에 다가오는 새로운 경제사회적 조류와 충남의 역동적 잠재력을 살려 향후 충남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 힘을 합쳐 실천해야 할 것이다. 향후 100년 앞을 내다보며 충남발전의 새로운 길을 정립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4신(新) 전략을 미래 충남의 이정표이자 발전전략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발전의 '4新 이란 '新성장' (New Growth), '新글로벌' (New Global), '新문화관광' (New Culture-Tourism), '新삶의 질' (New Quality of Life)이다.

첫째, 충남의 新성장을 위해 충남전역의 '창조경제밸리' 구축이 필요하다. 주요 핵심산업지대와 신산업지구를 창조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고 특히 정보통신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미래 창조경제루트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충남 서해안지역으로부터 내포신도시, 부여, 공주, 천안,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충북 오송지역 등으로 고도로 연계되는 창조경제루트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와 연계해 충청권의 중추도시권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거점지역과의 공동협업체제가 필요하다. 둘째, 충남의 新글로벌을 위해서는 환황해경제권의 글로벌 물류기지로서 평택-당진항을 연계메가포트로 개발하고 한중간 생산 물류 협력단지 개발 및 네트워크화가 요구된다. 농어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와 충남 글로벌 창조경제엑스포 구상의 추진도 필요하다. 셋째, 충남의 新문화관광을 위해서는 백제문화벨트의 개발을 위해 백제문화의 복원, 보존, 재현이 요구된다. 내포문화권과 기호유교문화권의 새로운 개발이 백제문화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리고 태안반도-다도해-어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제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충남의 산-강-바다를 연계하여 독특한 '힐링 회랑'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충남의 新삶의 질을 위해서는 충남형 '행복생활권'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주민 실생활권역을 '행복생활권'으로 규정하고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인 일자리, 의료, 교육과 보육, 주거복지, 대중교통, 안전 등의 주민행복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도시재생정책과 연계 추진할 때 시너지효과도 날 것이다.

향후 충남은 세계를 향한 새로운 문명을 잉태하고 전파하는 '창조국토'의 선도지역으로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충남 도민과 지자체와 대학, 기업, 중앙정부간 고도의 협업은 필수이다. 새로운 충남도청의 출범이 충남전체 발전, 충남도민의 행복, 충남인근지역과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변영 전진기지의 도약대가 되길 기원한다.